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김 중요업체 컨설팅 나서

해양수산부·부경대·한국어촌어항공단 등 의뢰 시설·병해·경영 등 문제점 파악, 개선 방향 제시

전북과 함께 전남을 대표하는 수산물인 김의 근간을 이루고 김 종자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종자업체의 시설 현대화, 지속적인 심품종 개발, 김 전문가 양성 및 업체 컨설팅 체계 구축, 고급 종자 공급을 통한 수익 제고 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해양수산부, 부경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의 의뢰를 받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전남도내 김 종자업체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자문 및 컨설팅에는 김도기 전 전남도해양수산물기술원 해양지원장, 서광일 서해어업조정위원회 위원, 강성필 해조산업개발 대표(이학박사) 등이 참여했다.

24일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사)한국 김 중요 생산자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 김 중요 생산업체는 130여 개로, 이 가운데 110여 개가 전남도내에 있다. 이 가운데 허가를 받은 업체는 66개이며, 60개가 전남에서 운영중이다. 운영업체 중 상당수가 비닐하우스나 움막 형태의 재래식 시설이며, 매출 역시 10억원대 미만의 영세한 곳이 대부분이다. 특히 종묘 배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굴 패각을 모두 중국에

서 수입하고 있어 김 중요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국내 굴 패각의 경우 비싼 가격에 수입 및 세척 어려움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센터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들은 전문가들로부터 시설, 병해, 경영 등의 전 분야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2대째 30년 이상 김 중요 생산을 해오고 있으나, 영세성 등으로 인해 과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었다.

평면식으로 김 종묘를 생산하고 있는 해남 해림수산 이성호(56) 대표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김 중요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설 보조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태풍이나 병해 등에 취약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이라고 말했다. 평면식·수하식으로 김 종묘를 생산하면서 김 양식, 가공까지 하는 진도 동해수산 이재영(53) 대표는 현대화를 통해 전국 각지에 김 종묘를 공급하고 있는 업계 1위의 종묘업체다. 이 대표는 "진도군에서 김 중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김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굴 패각 국산화, 심품종 개발 등에 더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김 중요 전문가 강성필 해조산업개발 대표가 지난 21일 전국 최대 김 중요업체인 진도 동해수산을 찾아 농변병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처방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다. 이날 동해수산에서는 농변병(굴 패각이 녹색으로 변색되는 현상)이 발견돼 김 중요 전문가인 강성필 해조산업개발 대표(이학박사)의 조언을 받아 조도를 낮추고, 영양제를 살포하기로 했다.

김 중요 전문가 강성필 대표는 "김 중요산업은 김 산업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김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종묘, 양식, 가공, 유통 등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오는 4월까지 전남도내 김 중요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묘업체 병해 예방, 경영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8년 전남도의 물고기 생산량은 42만7000t으로 전년보다 7만9000t(23%)이 늘었고, 이에 따른 생산액은 4845억원으로 전년보다 848억원(21%)이 증가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북·미 정상회담 등 빅 이벤트 즐비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높아
중국증시 상승·외국인 수급에 관심

미국 소매판매지수와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이 지역 제조업 협업을 반영하여 발표하는 지수가 시장 기대치를 훨씬 밑돌며 우려감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미·중 무역분쟁 최종 협상기한(3월 1일) 연장가능성과 무역협의를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 중이라는 소식으로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내 연준 자산규모 축소 종료가 거론되면서 아시아증시와 글로벌증시 상승세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해 유화적인 발언과 류허 부총리와 면담 이후 시진핑주석과 3월에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자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금요일에 1.9% 상승했고 지난주만 4.54% 상승하며 2800포인트를 회복했다.

코스피지수는 주 초반 상승세가 주춤했지만 수요일 무역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다시 확대되며 상승세가 이어졌고 코스닥지수는 주 초반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코스피지수 대비 강세를 보였지만 단기 상승에 따른 기관매물이 지속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이번주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많다. 첫번째,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신흥국지수(MSCI EM) 내 중국 A주 20% 확대편입 확정 여부(현재비중 5%만 반영). 지난해 9월 MSCI는 중국 A주를 단계별로 2020년까지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오는 25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국 A주 비중 20%확대가 확정되면 오는 5월과 8월 각각 7.5%씩 추가 편입할 것으로 보이며 MSCI EM 내 중국A주 비율은 0.7%에서 2.8%로 상승조정되고 한국 비율은 14.8%에서 14.0%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번째,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하고 미국은 북미 연락사무소 등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기존의 '전부 아니면 전부(All or Nothing)' 전략에서 단계별 비핵화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1차 북·미 정상회담보다는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수준으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추가 상승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사일 기지 폐쇄까지 3주 이상 소요됐는데 영변 핵시설 검증과 폐기가 합의된다고 해도 검증과 합의안 실행 단계에서 속도감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 대북 관련주는 상승폭이 확대될 때 이익실현하고 하락시 저점 매수하며 등락을 이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번주에도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미국증시 상승세 지속과 국내증시와 동조화가 강한 중국증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증시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이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에 대한 관심 집중이 필요해 보인다. 실적개선이 기대되는 화학주와 외국인수급이 양호한 IT 및 중국소비주와 저평가된 신규상장주 순환매 대응이 좋아 보인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이외 오는 26일·27일 파월 연준의장의 미의회 상원 증언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3월 1일 미국의 중국산 물품 관세 유예기한 연장 협상 등 국내이슈보다는 글로벌 이슈 영향이 예상된다.



농협전남본부 '농업인 신년 업무보고회' 개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지난 22일 '2019 농업인 신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회는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직원, 광주·전남지역 농업인 등 1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년에 이어 농업의 주인공인 농업인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업무보고로 진행됐다.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구현을 위해 농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농협 임직원은 물론, 농업인과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렸다. 협동조합 가치와 역할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으로 국민의 농협을 구현하고, 농업인 조합원의 주인의식 제고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 농업인 희망플랜 강연을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8시간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김병원 중앙회장은 신년 업무보고회에서 "농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가슴으로 함께하며 농업인과의 대화를 직접 진행하는 등 정성을 다해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농협과 농업인이 힘을 모아 농가소득 5000만원을 달성하고 농업인 행복시대를 열어가는데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산란일자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 구입하세요”

달걀껍데기 표기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이 추가된다. 이번 산란일자 표시제도 시행으로 생산정보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로 6자리에서 10자리로 늘어났다.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체의 적을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다.

그동안 소비자 입장에서는 포장지에 표시된 유통기한과 보관상태 등을 고려해 달걀 구매를 결정했으나 산란일자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게 되면서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회수대상 계란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계란의 신선도를 높여준다.

한편 정부는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도록 하는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오는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선별포장 유통 제도는 깨지거나 혈액이 함유돼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알 등을 사전에 걸러내어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달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정계두

(유통투자증권 광주지점장)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 안되고 갑갑함 째야 ?

아닙니다. 나를 위해 포기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 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 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완벽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다른 욕망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